

초기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유형분류와 예측*

김소영** · 홍세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양상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분류된 각 집단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 패널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 자살생각 변화에 대해 Nagin의 집단기반 모형(group based mode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 자살생각은 종단적 변화에 따라 '저수준 유지집단', '증가집단', '중간수준집단'의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남자에 비해 여자인 경우,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부정적이고 가정에서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심한 학업압박을 받거나 왕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일수록 자살생각이 높거나,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청소년 상담 및 지도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주제어 : 청소년 자살생각, 잠재계층분석, 발달궤적, 종단적 추이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한국과학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대학(WCU) 육성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R32-2008-000- 20023-0).

**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seeehong@korea.ac.kr

I. 서 론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에 속한 많은 국가들의 자살률이 1990년대 이후부터 감소한 반면 한국은 그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25세 이하 인구의 자살률은 20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과거 청소년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지만, 2011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2009년 15~24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통계청, 2011). 개선의 여지가 있는 다른 청소년 문제와는 달리 청소년 자살은 개선의 기회 자체가 없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 또한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자살의 원인에 대한 대표적인 초기연구로 Durkheim의 자살론(1897)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자살을 개인의 유전적·개인적 요인의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자살론 이후에도 학자들은 심리역동적, 인지적, 행동주의적, 발달적,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자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Granelli & Granelli, 2007).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살관련 행동은 인간의 발달에 따라 축적되는 경험의 결과이므로 시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94)의 생태체계학적 입장을 취하였다.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환경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는 생태체계학적 요인 중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김기환·전명희(2000)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의 직접적 원인으로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부모의 꾸중, 수능성적 결과 확인이 각각 약 17%, 15%, 11%로 나타났으며,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취한 연구 중 부모와 또래 학교환경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Kidd, 2006)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요인이 청소년 자살의 주요 예언변인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살생각의 변화형태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자살생각은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각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자살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김현주, 2008; 최인재, 2010; Beck, 1979; Dubow et al., 1989; Hawthorn et al., 1998; Kumar & Steer, 1995; Pferrer et al., 1993; Stein et al., 1992). 전에도 청소년 자살충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전체적

으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는데 그쳤다(Kovacs et al., 1993; Lasgaard et al., 2011; 임성택 외, 2010). 그러나 자살생각은 청소년이 처한 환경과 발달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므로 자살생각의 전체적인 변화가 어떠한지 보는 것 보다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 개별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집단을 분류함으로써, 자살위험이 낮은 청소년에게 들이는 관심과 노력을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 형태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도출된 집단과 청소년의 가정, 학교, 개인변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청소년자살 예방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자살생각과 개인적 요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먼저 성별을 들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자의 고의적 자해가 남자보다 높았으며(Toprak, 2011) 여자청소년의 자살관련 행동과 정신건강 위험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엄태완, 2008; Borges et al., 2008).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에 의하면 자살생각과 실행에 있어서 여학생이 일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적 신념이며(Nielsen & Metha, 1994)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살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홍영수, 2004).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우울이나 불안 등 내면화 문제를 많이 겪으며(Stein, 1995; 권순용, 2008) 더 많은 자살시도를 보고한다(Overholser et al., 1995). 부모자녀관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적 매개 효과가 있으며(최인재, 2010), 특히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장 잘 구별해주는 요인이다(이정윤, 2004).

자기통제력 역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다(Fabes et al., 1999). 자기통제력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정서적·행동적 충동표출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Tangney et al., 2004). 특

히 높은 자아통제는 우울·분노 등 내면화 적응문제를 조절하는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로 부정적인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최정아·이혜은, 2008) 자기통력이 부족할수록 자살의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김현주, 2008).

2. 자살생각과 가정환경 요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이외에도 환경적 요인이 있다(Wilde, 2000). 환경적 요인 중에서 주된 요인은 가정 환경적 요인이며 자살시도를 했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관계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Wagner, 1997; Wagner, 1995).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려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며(Wright, 1995),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에 대한 만족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은 자살생각을 비롯해 정신질환, 비행 등의 부적응을 경험한다(Barnes & Olson, 1985; Pfeffer, 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청소년들은 높은 고의적 자해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ostic & Everall, 2007; Toprak, 2011).

가정에서의 폭력경험도 자살생각에 대한 주요 영향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부간 폭력이나 갈등을 보고 자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시도가 많으며,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부모의 신체·언어적 폭력도 청소년의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이다(Wright, 1995; 김재엽 외, 2009). 아동은 양육자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구분하지는 못하며 가정 내 갈등이 많을수록 아동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Sabbath, 1969).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삶의 질 수준이 낮으며(Amato & Keith, 1991) 이는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외면화문제, 우울·불안을 포함하는 내면화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이다(Kerig, 1998; Grych & Fincham, 1990). 임상적으로도 아동의 자살충동은 부정적인 가족기능과 높은 연관이 있다(Rosenthal & Rosenthal, 1984).

가정환경적 요인 중에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주요 영향변인으로 가계소득도 보고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정의 문화자본과 소득수준으로 설명되는 변인이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인 청소년일수록 높은 자살생각 수준

을 나타낸다(홍영수, 2004; Andrews & Lewinsohn, 1992; Dubow et al., 1989; Roberts et al., 1997; Rubenstein et al., 1989). 특히, 낮은 가계소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은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김선아, 2009; Toprak et al., 2011). 자살위험의 고위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김현주, 2008).

3. 자살생각과 학교관련 요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학교관련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있다. 통계청(2011) 자료에 의하면,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자살충동을 느낀 이유가 성적과 진로문제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 우울과 자살생각을 보고하는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oero et al., 2001), 학업문제는 부모의 기대와 맞물려 청소년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전영주 외, 2000).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도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Pettit, 2011). 14-16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또래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높은 우울과 자살생각을 보고하며, 아동기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성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양호하지 않았다(Kaltiala-Heino et al., 1999). 집단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은 정신질환여부와 상관없이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예언변인이며(Skapinaks et al., 2011), 한국에서 집단따돌림은 소수 학생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심리적·신체적 적대감을 표현하는 ‘왕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도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학교환경요인이다. 교사와의 갈등은 또래와의 갈등과 함께 청소년이 대인관계 적응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다(전영주 외, 2000). 교사와 학생관계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인간관계이고, 이 관계는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다(김선아, 2009; Kandel et al., 199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개인변수, 가정변수, 학교변수를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동시에 고려하여 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 형태를 예측·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 자살생각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은 몇 개이며 각 집단의 변화는 어떤 형태인가? 여기서 구분되는 집단은 추정을 통해 나타나는 집단이므로 잠재계층(latent class)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집단과 잠재계층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 청소년 자살생각의 종단적 변화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과 개인, 가정, 학교 관련 변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와는 달리 종단연구로서 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를 추정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중, 고등학교 수준의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변화를 추정한다. 청소년기는 생리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기로 그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되므로 이때의 부정적 사고는 본격적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정적 사고가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 기간의 변화유형에 따라 개입이 필요한 집단을 분류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번 반복측정된 초등학교 4학년 패널로, 1차년도를 기준으로 2,844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변수설명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이며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

각이 들 때가 있다'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다. 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기 위해 1차년도 부터 5차년도의 동일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의 초4패널 1차년도의 성별, 자아 존중감, 자기통제, 부모-자녀 관계, 가정 내 폭력, 가정의 수입, 학업압박, 또래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왕따) 여부, 교사애착을 측정된 문항들이다. 독립변수의 측정문항 및 신뢰도 알파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부모자녀관계, 가정내 폭력, 학업압박, 교사애착에 대한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다.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아 존중감의 세 문항과 자기통제에 대한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표 1> 독립변수를 측정한 문항과 신뢰도

변수	상세사항	신뢰도
성별	1=남학생, 0=여학생으로 코딩	-
자아 존중감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41
	나는 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통제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643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변수	상세사항	신뢰도
부모자녀 관계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76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가정 내 폭력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685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가계수입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
학업압박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단위: 만원)	.608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기대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	
	나는 지금 공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왕따경험	나는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따라갈 수 가 없다.	-
	지난 1년 동안 집단따돌림(왕따)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 애착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548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 표시는 역코딩 문항.

3. 분석방법

시간에 따른 변화유형으로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각 잠재계층과 독립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Nagin(1999b)의 집단기반 모형(Group Based Model)을 사용하여 SAS 9.1의 매크로 PROC TRAJ로 분석하였고, 이 방법은 결측치가 분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Nagin, 1999a). PROC TRAJ를 적용하여 변수의 변화 형태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개인변수, 가정변수, 학교변수를 투입하여 각 잠재계층과의 관련성을 다항로지트 분석하였다.

Nagin(1999b)의 집단기반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t]^J = \beta_0^J + \beta_1^J X_i[t] + \beta_2^J X_i^2[t] + \dots + \beta_k^J X_i^k[t] + e_i[t]$$

위 식에서 $Y_i[t]^J$ 는 J 라는 잠재계층에 속한 개인(i)이 시점[t]에 해당하는 자살생각 값이고, X 는 독립변수를 의미하며 k 차 함수까지 나타낸 식이다. 계수 β^J 는 잠재계층 J 에 대한 변화 형태를 결정하며, 잠재계층에 따라 변화형태의 함수를 다르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도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tz, 1978)를 이용하였다. 각 지수는 아래와 같다.

$$AIC = \log(L) - (.50)q$$

$$BIC = \log(L) - (.50)q \log(N)$$

위 식에서 $\log(L)$ 은 로그 우도값, q 는 모수의 수,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하며, 두 지수 모두 설명력과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큰 값일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참고: 대부분의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작은 값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는 AIC, BIC를 보고하지만 PROC TRAJ는 반대로 AIC, BIC를 계산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모형선택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두 지수의 값만 보고 모형을 결정하는 것은 표본크기가 클수록 더 복잡한 모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Jedidi et al., 1997),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할 때 각 잠재계층의 변화유형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각 잠재계층을 구성하는 비율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ollins & Lanza, 2010).

IV. 연구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청소년의 자살생각 변화와 심리사회적 변인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전에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살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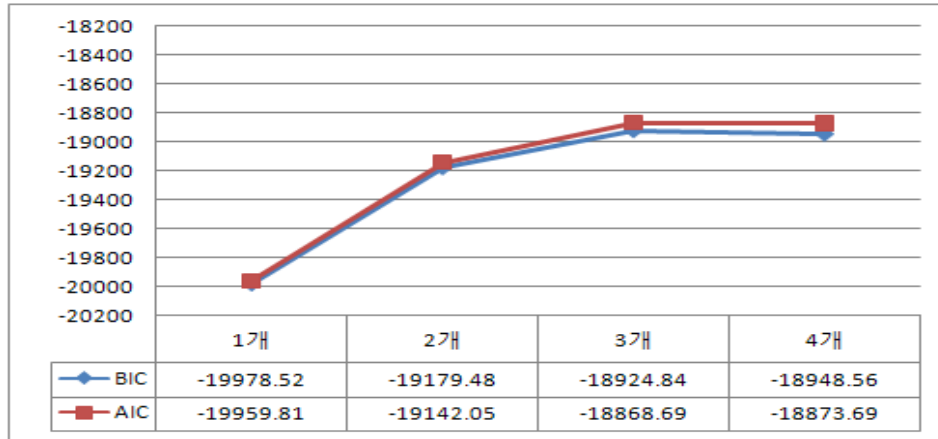
<표 2> 자살생각 및 관련변수의 기술통계

		전 체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자살생각 (1차년도)	1,649	1,087
	자살생각 (2차년도)	1,734	1,069
	자살생각 (3차년도)	1,808	1,055
	자살생각 (4차년도)	1,883	1,078
	자살생각 (5차년도)	1,912	1,035
독립변수	성별	-	-
	개인		
	자아존중감	3,491	0,675
	자기통제	3,776	0,687
	가정		
	부모-자녀 관계	3,733	0,730
	가정 내 폭력	1,565	0,680
	가정의 수입	302,139	176,518
	학교		
	학업압박	2,221	1,046
	선생님애착	2,738	0,897
	왕따 여부	-	-

1. 자살생각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청소년의 자살생각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기 위해서 잠재계층을 분류할 때 산출되는 적합도지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상대적 적합도지수인 AIC와 BIC이다. 잠재계층 수에 따른 상대적 적합도지수의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잠재계층의 수가 3개까지는 AIC와 BIC가 점차 증가하지만 4개가 되면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잠재계층의 수를 3개로 정하였다. 추출된 3개의 잠재계층에 대해 PROC TRAJ에서 제공하는 변화함수의 최대 차수인 3차 함수까지 적용한 결과, 집단 1은 자살생각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어 절편만 유의미했고, 집단 2는 2차 함수까지 유의했으며, 집단 3은 1차 함수까지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집단에 대해 추정된 계수의 유의성에 따라 변화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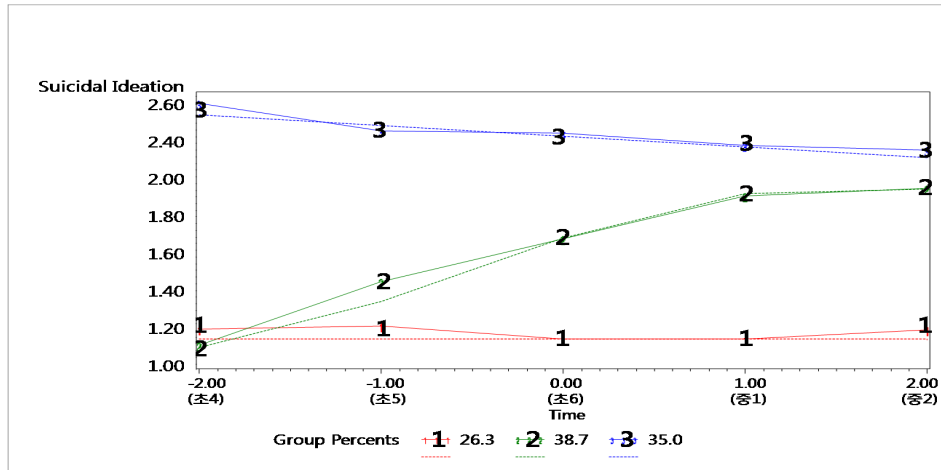
[그림 1] 잠재계층 수 변화에 따른 적합도 지수 변화

각 계층에 대한 자살생각의 변화추이의 최종분석 결과는 <표 3>과 같고 변화형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2학년 까지 꾸준히 낮은 수준의 자살생각을 보고한 집단을 ‘저수준 유지집단’(집단1),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 저수준에서 중간수준까지 증가하는 집단을 ‘저수준에서 중간수준으로 증가집단’(집단2), 중간수준을 유지하는 ‘중간수준 집단’(집단3)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 잠재계층의 비율은 저수준 유지집단 26.3%, 저수준에서 중간수준으로 증가집단 38.7%, 중간수준 집단 35.0%로 나타났다.

<표 3> 자살생각의 잠재계층 분류

잠재계층	비율(%)	함수	계수	표준오차	t
1 저수준 유지 집단	26.3	절편	-0.845	0.142	-5.957 ***
		절편	1.066	0.086	12.434 ***
2 증가 집단	38.7	1차	0.710	0.075	9.467 ***
		2차	-0.222	0.040	-5.590 ***
3 중간수준 집단	35.0	절편	2.096	0.051	41.16 ***
		1차	-0.097	0.028	-3.439 ***

* p<.05, ** p<.01, *** p<.001



[그림 2] 자살생각의 종단적 추이

2. 자살생각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과 영향 요인의 관련성

3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된 모형에 예측변수를 추가하여 각 변수가 잠재계층의 분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개인, 가정, 학교 변인과 잠재계층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에서 분류한 잠재계층 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기준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실시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자살생각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독립변수의 관련성

기준집단	비교집단	변수	계수	표준오차	t
저수준 유지집단	증가 집단	성별(1=남)	-462	0.169	-2.731**
		자이존중감	0.062	0.149	0.415
		자기통제	-0.301	0.141	-2.134*
		부모자녀관계	-0.241	0.132	-1.832
		가정 내 폭력	0.156	0.159	0.980
		가정의 수입	0.000	0.001	0.331
		학업압박	-0.223	0.095	-2.355
		왕따(1=경험)	0.269	0.350	0.769
		선생님애착	-0.137	0.092	-1.481

기준집단	비교집단	변수	계수	표준오차	t
저수준 유지집단	보통수준 집단	성별(1=남)	-0.845	0.165	-5.113***
		자아존중감	-1.180	0.149	-7.899***
		자기통제	-0.529	0.127	-4.153***
		부모자녀관계	-0.249	0.121	-2.054*
		가정 내 폭력	0.805	0.135	5.982***
		가정의 수입	-0.000	0.000	-0.182
		학업압박	0.441	0.081	5.442***
		왕따(1=경험)	0.638	0.319	2.001*
		선생님애착	0.024	0.909	0.263
보통수준 집단	증가 집단	성별(1=남)	0.384	0.172	2.231*
		자아존중감	1.242	0.150	8.262***
		자기통제	0.228	0.133	1.708
		부모자녀관계	0.001	0.129	0.059
		가정 내 폭력	-0.650	0.130	-4.979***
		가정의 수입	0.000	0.001	0.437
		학업압박	-0.665	0.087	-7.627***
		왕따(1=경험)	-0.369	0.301	-1.228
		선생님애착	-0.161	0.096	-1.667

* p<0.05, ** p<0.01, *** p<0.001

자살생각의 잠재계층과 개인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증가집단 보다는 저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보통수준집단보다 저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보통수준집단 보다 증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즉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은 자살생각이 덜 심각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보통수준집단보다 저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보통수준 집단 보다는 증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자기통제를 잘 할수록 증가집단 보다 저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보통수준 집단 보다 저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를 정리하면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자살생각 구체화 정도가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정환경과의 상관을 보면,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보통수준집단 보다 저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자녀가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경우가 많을수록 저수준 유지집단 보다는 보통수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보통수준집단 보다는 증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가정의 화목할수록 자살생각의 위험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 수입과 자살생각 잠재계층의 관계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학교환경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심한 학업스트레스를 겪는 학생일수록 저수준 유지집단 보다는 보통수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증가집단 보다는 중간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것은 청소년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성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저수준 유지집단 보다는 보통수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애착과 자살생각 잠재계층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변화 형태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개인, 가정, 학교관련 변수와 잠재계층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잠재계층은 변화의 형태에 따라 각각 저수준 유지집단, 증가집단, 보통수준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저수준 유지집단은 전체평균값을 기준으로 낮은 자살생각을 유지하였고, 중간수준 집단은 전체평균수준에서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증가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수준 유지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자살생각을 보고하였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값이 증가하여 중간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세 잠재계층의 경우 자살생각 점수는 5점 척도에서 3점인 ‘보통이다’ 이하로 나타나서 대부분 학생의 자살생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가집단의 경우, 본 연구에서 추정된 함수를 바탕으로 볼 때, 중학교 2학년 이후에도 자살생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구체화되어 자살계획이나 실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증가집단의 청소년에게 학교 현장이나 가정에서 적절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류된 세 가지 자살생각의 잠재계층과 개인관련 변수의 관련성 중 성별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중간수준이나 증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자살생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김선아, 2009; 엄태완, 2008; Berman & Jobes, 1991; Borges et al., 2008; Toprak, 2011)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횡단연구와 달리 변화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대한 성별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보통수준 집단보다 저수준 유지집단이나 증가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자살행동과 관련해서 높은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이라는 선행연구(홍영수, 2004; Overholser et al., 1995)와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이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고,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자아존중감이 높더라도 가정·학교에 환경에 따라 자살생각의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 가정이나 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최인재, 2010; Wright, 1995) 종단적 관점에서 보면, 자아존중감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작용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자기통제 수준을 보고 할수록 증가집단이나 보통수준 집단 보다는 저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는데, 이는 자살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통제의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김현주, 2008; 최정아·이혜은, 2008; Fabes et al., 1999)와 상통하는 결과이다.

자살생각의 잠재계층과 가정환경 변인의 관련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중간수준집단 보다는 저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므로 기존연구(Bostic & Everall, 2007; Toprak, 2011; Wagner, 1995; Wagner, 1997; Wright, 1995)와 같이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정에서 부부간 갈등을 목격 하거나 부모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할수록 증가집단, 중간수준집단, 저수준 유지집단 순서로 해당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기존연구들(김재엽 외, 2009; Asarnow, 1992; Rosenthal & Rosenthal, 1984; Wright, 1995;)에서도 살펴본 바 있듯이 가정에서의 직·간접적 폭력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데 심각한 위험요인임을 시사한다. 가정의 수입은 자살생각의 잠재계층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므로 선행연구(김현주, 2008; 홍영수, 2004; Andrews & Lewinsohn, 1992; Dubow et al., 1989; Roberts et al., 1997; Rubenstein et al., 1989)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나, 경제적인 풍요로움 혹은

부족함이 자살생각의 잠재계층 분류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관련 변인과 자살생각의 잠재계층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학업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중간수준, 저수준, 증가집단 순서로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저수준에 비해 중간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전영주 외, 2000; Toero et al., 2001)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학업스트레스 수치가 낮은 학생일수록 자살생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은 자살생각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학업스트레스 이외의 원인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공부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거나 비행청소년일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저수준 유지집단 보다 중간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자살관련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Kaltiala-Heino et al., 1999; Skapinaks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집단따돌림의 경우, 자살생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초기청소년기에 집단따돌림을 당했던 학생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생님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잠재계층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사와 관련된 요인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는 관련이 있으나(김선아, 2009; 전영주 외, 2000; Kandel et al., 1991) 자살생각의 잠재계층과는 무관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언변인을 확인하고 자살생각의 심각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38.7%의 학생들이 증가수준에 해당하며 이 들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면 청소년자살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학교상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정, 학교변인에 대한 연구로 청소년 자살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자살생각의 위험성에 있어서 성별, 자아존중, 자기통제 가정폭력, 학업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강점은 Nagin의 집단기반 모형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비슷한 수준의 자살생각을 가진 학생일지라도 개인적 특성과 처한 환경에 따

라 위험군 즉 증가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생을 미리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독립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발달단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1차 년도의 특성만으로 변화양상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독립변인의 변화양상도 함께 고려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순용(2008). 사회적 지지, 우울의 인과적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6권 제2호, pp. 93-118.
- 김기환 · 전명희(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9권, pp. 127-152.
- 김선아(2009). 초등학교시기의 심리사회요인과 중학생시기의 자살생각간의 관계: 스트레스, 우울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3호, pp. 5-27.
- 김재엽 · 정윤경 · 이진석(2009). 가정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pp. 119-144.
- 김현순(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 203-225.
- 김현주(2008). 청소년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제27권, pp. 69-93.
- 박병금(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3호, pp. 1-18.
- 보건복지부(2009). *한눈에 보는 OECD보건지표 2009 (Health at a Glance 2009: OECD INDICATORS 한국어판)*.
- 엄태완 · 강명진 · 최정순(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사회적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22권, pp. 5-30.
- 임성택 · 주동범 · 이금주(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스트레스, 공부압력감의 종단적 추이와 해석.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1호, pp. 23-43.
- 이경상 · 조혜영 · 박현수(2004).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 -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정운(2004). 자살생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문제행동,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5권 제1호, pp. 163-175.

- 정익중(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 pp. 253-280.
- 최인재(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 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9호, pp. 105-130.
- 최정아 · 이혜은(2008).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pp. 295-326.
- 홍영수(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및 자기존중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 153-182.
- 통계청(2011). 2011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http://kostat.go.kr>.
- Akaike, H.(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Vol. 19, pp. 716-723.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0, pp. 26-46.
- Andrews, J. A., & Lewinsohn, P. M.(1992). Suicidal attempts among older adolescents: Prevalence and co-occurrence with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1, pp. 655-662.
- Asarnow, J. A.(1992).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during middle childhood: Associations with perceived family stress and depression among child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1, pp. 35-40.
- Barnes, H. L.,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Vol. 56, pp. 438-447.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1979). Assessment of suicidal idea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37, pp. 343-352.
- Borges, G., Benjet, C., Medina-Mora, M. E., Orozco, R., Nock, M.(2008).

- Suicidal ideation, plan, and attempt in the mexican adolescent mental health surve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Vol. 47 No. 1, pp. 41-52.
- Bostik, K. E., & Everall, R. D.(2007). Healing from suicid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Vol. 35 No. 1, pp. 79-96.
- Bronfenbrenner, U.(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3 (2nd Ed). Oxford: Elsevier.
- Collins, L. M. and S. T. Lanza,(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Wiley.
- Dubow, E. F., Kausch, D. F., Blum, M. C., Reed, J., & Bush, E.(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8, pp. 158-166.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Vol. 70, pp. 432-442.
- Garenfsky, N., & Diekstra, F. W.(1997). Adolescents from one 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emotional problems and suicidal attemp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0, pp. 201-208.
- Graae, F., Tenke, C., Bruder, G., Rotheram, M-J., Piacentini, J., Castro-Blanco, D., Leite, P., & Towey, J.(1996). Abnormality of EEG alpha asymmetry in female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Biological Psychology*, Vol. 40, pp. 706-713.
- Grych, J. H.,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pp. 267-290.
- Hawton, K., Arensman, E., Wasserman, D., Hulten, A., Bille, B. U., Bjerke,

- T., Crepet, P., Deisenhammer, E., Kerkhof, A., De L.D., Michel, K., Ostamo, A., Philippe, A., Querejeta, I., Salander, R.E., Schmidtke, A. and Temesvary, B.(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mpted suicide and suicide rates among young people in Europ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52, pp. 191-194.
- Jedidi, K., Jagpa, H. S., and DeSarbo, W. S.(1997). Finite-mix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response-based segmentation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Marketing Science*, Vol. 16, pp. 39-59.
- Kaltiala-Heino, R., Rimpela, M., Marttunen, M., Rimpela, A., Rantanen, P. (1999).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Finnish adolescents: school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19, pp. 348-351.
- Kandel, D., Raveis, V., & Davies, M.(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0, pp. 289-309.
- Kerig, P. K.(1998). Moderators and mediators of the inter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26 No. 3, pp. 199-212.
- Kidd, S., Henrich, C. C., Brookmeyer, K. A., Davidson, L., King, R. A., Shahar, G.(2006). The social context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 peer, and school social relatio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6 No. 4, pp. 386-395.
- Kovacs, M., Goldston, D. and Gatsonis, C.(1993). Suicidal behaviors and childhood-onset depressive disorder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2, pp. 8-20.
- Kumar, G. & Steer, R.(1995). Psychosocial correlate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5 No. 3, pp. 339.
- Lasgarrd, M., Goossens, L., Elklit, A.(2010). Loneliness, depressive symptomatology,

-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c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9, pp. 137-150.
- Marcenko, M. O., Fincham, G., & Friedman, J.(1999). Reexamin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pplied to a diverse popul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8, pp. 121-138.
- Nagin, D.(1999a).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emi 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 Vol. 4, pp. 139-177.
- Nagin, D.(1999b). *Group based modeling*. CA: Harvard University Press.
- Nielsen, D. M., and Metha, A.(1994).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in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Adolescence*, Vol. 29 No. 115, pp. 525-542.
- Overholser, J. C., Adams, D. M., Lehnert, K. L., & Brinkman, D. C.(1995). Self-esteem deficits and suicidal and suicidal tendencies among adolesc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4, pp. 919-928.
- Pettit, J. W., Green, K. L., Grover, K. E., Schatte, D. J., & Morgan, S. T. (2011). Domains of chronic stress and suicidal behaviors among impatient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 40 No. 3, pp. 494-499.
- Pfeffer, C. R.(2000). Suicidal behaviour in children and emphasis on developmental influences. In Keith Hawton and Kees van Heeringen (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John Wiley & Sons. Ltd.
- Pferrer, C. R., Klerman, G. L., & Hurt, S. W.(1993). Suicidal children grow up: Rates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during follow up.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Vol. 32, pp. 106-113.
- Pinto, A., Whisman, M. A., & Conwell, Y.(1996). Reasons for living in a clinic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1, pp. 377-405.

- Roberts, R. E., Chen, Y. R., & Roberts, C. R.(1997). Ethnocultural differences in prevalence of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7*, pp. 208-217.
- Rosenthal, P. A. and Rosenthal, S.(1984). Suicidal behavior by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41*, pp. 520-525.
- Rubenstein, J. L., Heeren, T., Housman, D., Rubin, C., & Stechler, G. (1989). Suicidal in 'normal'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9*, pp. 59-71.
- Sabbath, J. C.(1969). The suicidal adolescent: The expendable chil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Vol. 8*, pp. 272-289.
- Sandin, B., Chorot, P., Santed, M. A., Valiente R. M., & Joiner, T. E.(1988). Negative life events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 critical analysis from the stress 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Vol. 21*, pp. 415-426.
- Schwartz, G.(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Vol. 6*, pp. 461-464.
- Stein, K. F.(1995). Schema model of the self concep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 27 No. 3*, pp. 187-195.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Vol. 72*, pp. 271-324.
- Toero, K., Nagy, A., Sawaguchi, T., Sawaguchi, A., & Sotonyi, P.(2001). Characteristics of suicid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 in Budapest. *Pediatrics International, Vol. 43*, pp. 368-371.
- Toprak, S., Cetin, I., Guven, T., Can, G., Demircan, C.(2011). Self-harm,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college. *Psychiatry Research, Vol. 187*, pp. 140-144.
- Wright, L. S.(1985). Suicidal thoughts and their relationship to family stress and personal problems among high school seniors and college undergraduates,

Adolescence, Vol. 20, pp. 575-580.

Wilde, E. J.(2000). Adolescent Suicidal Behaviour: A general population perspective.
In Keith Hawton and Kees van Heeringen(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John Wiley & Sons, Ltd.

Wagner, B. M.(1997).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1, pp. 246-298.

ABSTRACT

Identifying and Predicting Trajectories of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im, So-Young* · Hong, Se-H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groups (i.e. latent classe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testing the effects of psycho-social variables on determining these latent classes. In order to do this, group based modeling based on the work of Nagin was performed using data harvested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Our results revealed that three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which could be defined as follows; a low-level group, a increasing from low- to middle-level group, and a middle-level group. Multinomial logit analysis indicated that gender, self-esteem, self-control,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domestic violence, study stress, and experience of being a victim of bullying were all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From these research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more sophisticated interventions for adolescent groups with differe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should be designed.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suicidal attempts, adolescents suicide, latent class analysis, developmental trajectory, longitudinal study

투고일 : 12월 12일, 심사일 : 1월 20일, 심사완료일 : 2월 16일

* Korea University